

# 문화반응이론을 이용한 사회참여척도의 타당성 검증

신인철<sup>1)</sup>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활용되는 사회참여척도의 타당성을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해당 척도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됐으나, 측정의 내적 구조 및 문화적 타당성에 대한 학술적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크다. 본 연구는 2019년, 2021년, 2023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문화반응이론의 핵심 가정인 단일차원성, 국소적 독립성, 단조성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측정불변성 및 문항별 모수(난이도와 변별도) 추정을 포함한 5단계 엄밀 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사회참여척도는 단일 척도로 가정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구성개념임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개별 문항의 가중치를 무시한 현행의 단순 합산 방식은 측정의 정밀도와 타당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2023년 데이터의 경우 단일차원성과 국소적 독립성 가정이 모두 위배되어 IRT 모델의 직접적 적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측정불변성의 결여는 시계열 비교 및 집단 간 비교 분석 시 심각한 편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척도의 오랜 사용 이력과 지표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자료 이용 시의 방법론적 엄밀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자들은 문항의 단순 합산을 지양해야 하며, 측정 효율성과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정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문항을 '공식적 참여' 지표로 분리하여 활용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주요용어** : 문화반응이론, 사회참여척도, 측정불변성, 차별기능문항, Mokken 척도분석, 척도 타당화

## 1. 서론

최근 다학제적 융합 연구의 활성화로 인하여 특정 학문분야의 고유한 이론이 복합적 사회현상을 진단하는 범학문적 틀로 확장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개념이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이론은 1980년대 사회학을 기점으로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외연을 확장해 왔으나, 그 적용 범위의 확대와 비례하여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논쟁 또한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Poder(2011)와 Fischer(2005)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사회자본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주요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측정 방식 및 효과 해석에 있어 상당한 이질성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지닌 학술적·분석적 유용성으로 인해 그 활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부교수.

E-mail: incshin@uos.ac.kr

학문적 오류를 방지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경험적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박우순, 2004). 다만, Bourdieu, Coleman, Putnam 등으로 대표되는 초기 사회자본 논의는 학자별 지향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후속 연구들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논의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Putnam(2000)이 제시한 이론적 관점을 분석의 틀로 채택하고자 한다.

Putnam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구조적 측면과 호혜성 및 신뢰라는 규범적 측면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이영재, 2018). 본 연구는 이 같은 그의 이론 체계에서 핵심 기제로 작동하는 사회참여 요인에 주목하고, 해당 척도가 지닌 측정방법론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Bhandari and Yasunobu, 2009). 그 이유는 사회참여척도가 국내의 다양한 사회조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방식과 데이터 활용의 방법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김준환, 2005; 송경재, 2013). 물론 연구 목적에 따라 변수의 조작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참여척도를 변환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과연 통계적·이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친목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에 대한 참여 정도를 측정할 때, 각 단체의 참여 난이도와 속성은 질적으로 상이하다. 직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친목단체와 정치단체에 참여할 확률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채, 참여 여부만을 합산하여 참여 단체의 개수를 산출하거나(최아영, 2022; Cigler and Joslyn, 2002), 리커트 척도의 등간성 가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평균값을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이혜령·최희정, 2024; 정순돌·성민현, 2012).

이러한 관행적 활용은 방법론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내포할 수 있다. 척도의 합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뿐만 아니라,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 국소적 독립성(local independence), 단조성(monotonicity)과 같은 측정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연구가 탐색적 요인분석이나 신뢰도 계수 확인에 그치거나, 국가 승인 통계라는 권위에 의존하여 이 과정조차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도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수준의 검토만으로 문항을 추가·삭제하거나 변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국내 학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지표 조사인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척도를 대상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인 척도 활용 방식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사용자(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방법론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사회참여 척도의 타당성 논쟁과 활용

### 2.1 사회참여 척도의 발전사

세간의 오해와 달리 사회참여척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의 타당성을 왜 검토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척도의 연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950년대 미국의 사회과학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던 자발적 결사체 참여(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에 대한 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견뎌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는 경제적 번영과 함께 민주주의적 가치, 시민권, 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발맞춰 시민단체, 인권단체, 지역사회 조직 등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1940~1950년대 미국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증가하고 그만큼 노조활동이 확대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당시에 사회과학에서 행태주의가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의 행동, 태도, 참여 등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대단위 사회조사가 가능한 학문적 환경도 조성되고 있었다. Fine과 Harrington(2004)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바와 같이, 당시 미국에서는 공동체 쇠퇴론이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주의적인 이미지와 달리 ‘미국인들은 끊임없이 협회를 결성한다’는 토크빌의 말처럼 지역사회 복지증진 활동에 익숙한 미국인, 타인 지향적 인간, 조직인 등과 같이 시민참여와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미국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는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당시에 실시되었던 조사들을 모두 확인하기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Baumgartner와 Walker(1988)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증가했다는 주장을 폈고, 이들의 주장을 비판한 Smith(1990)의 연구를 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자발적 결사체 참여도를 조사한 대표적인 사회조사와 문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관련된 문항이 1950년대 초부터 조사됐음을 알 수 있다.

<표 2.1> 미국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관련 초기 조사들

| 조사                                                      | 조사내용                                                                                                                                                                                                                                                                                                                                                                                      |
|---------------------------------------------------------|-------------------------------------------------------------------------------------------------------------------------------------------------------------------------------------------------------------------------------------------------------------------------------------------------------------------------------------------------------------------------------------------|
| 1952년 미국 전국 선거 연구<br>(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클럽과 단체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저와 함께 살펴보고 노동조합, 로지(lodge), 재향군인 단체 등과 같은 단체에 속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li> <li>• 귀하가 속한 모든 단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목록에 없는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li> <li>• 이 단체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주요 활동이 무엇입니까?</li> <li>• 이제 이 단체(들)에서 얼마나 활동적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단체는 어떻습니까? 이 단체의 활동적인 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습니까?</li> </ul> |
| 1953년 NORC3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중 1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어떤 종류의 클럽, 로지, 친목 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li> </ul>                                                                                                                                                                                                                                                 |
| 1954년 전국 건강 조사 (Gall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단체, 서비스 클럽, 친목 클럽과 같은 어떤 단체나 클럽에 속해 있습니까?</li> </ul>                                                                                                                                                                                                                                                                                           |

| 조사                                         | 조사내용                                                                                                                                                                                                                                     |
|--------------------------------------------|------------------------------------------------------------------------------------------------------------------------------------------------------------------------------------------------------------------------------------------|
| 1955년 NORC36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기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우연히 속해 있습니까?</li> <li>(‘예’인 경우) 어떤 것들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 집단(그 집단)에서 매우 활동적입니까?”</li> </ul>                                                                               |
| 1957년 현대 생활 연구<br>(Survey Research Cent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지, PTA, 지역사회 단체,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집단과 같은 (다른) 클럽 및 단체의 회원입니까?</li> <li>(‘예’인 경우) 어떤 것들입니까?</li> </ul>                                                                                                |
| 1958년 NORC4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중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li> <li>(‘예’인 경우) 누가 노동조합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노동조합에 속해 있습니까?</li> <li>클럽, 친목 단체, 전문 협회 또는 시민 단체와 같이 10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다른 어떤 단체에 가족의 성인들이 속해 있습니까? (다른 단체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li> </ul> |
| 1960년 시민권 조사<br>(NORC 4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 또는 노동조합, 사업단체, 사회단체, 전문 또는 농업단체, 협동조합, 친목 또는 재향군인 단체, 운동클럽, 정치, 자선, 시민 또는 종교 단체 또는 다른 어떤 조직된 집단의 회원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li> </ul>                                                   |
| 1960년 AIPO625<br>(Gallup Pol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 단체나 집단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즉, 친목, 사회, 사업, 시민 또는 종교 단체입니까?</li> </ul>                                                                                                                      |
| 1962년 NORC4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기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작년에 그 집단에서 활동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았습니까?”</li> </ul>                                                                                    |
| 1964년 SRS760<br>(NOR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조합, 로지, 교회 단체, 정치단체 또는 사교 클럽과 같은 어떤 단체나 클럽에 속해 있습니까?</li> <li>(‘예’인 경우)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 단체나 집단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위해 더 자세히 질문)</li> </ul>                                        |

출처: Smith, T.M.(1990)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조사인 GSS(General Social Survey)에서는 단체회원(Association Membership)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참여척도를 1974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Smith(1990)가 명확히 적시해 놓은 것처럼, 이 문항들은 1967년 NORC에서 Verba와 Nie가 주도한 「Political Participation in America」라는 조사에 포함된 문항을 그대로 이용하되(Verba and Nie, 1967), ‘교회 관련 단체’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당초 이들의 연구 목표는 투표라는 단발성 행위를 넘어 시민들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기에 <표 2.1>에서 정리된 것처럼 이전에 유사한 문항들을 기초로 자발적 결사체의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다만, 당시 정치학계는 근대화 이론의 영향 아래 종교적 활동을 전근대적이거나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세속적 편향(secular bias)’은 설문 설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67년 연구의 핵심 질문 배터리는 친목 단체, 봉사 클럽, 재향군인회, 노동조합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하며 가입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 조직 내 활동’은 이 목록에서 배제되었다. 교회 관련 활동은 응답자가 ‘그 외 다른 조직(Any other organizations?)’이라는 개방형 질문에 스스로 언급할 때만 사후적으로 코딩되었다. 이는 종교적 결사체를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잔여 범주(residual category)로 취급하는 방법론적 태도였다. 총 16개로 나누어 각 단체에 회원(소속)인지를 묻는 척도였으며, 1994년까지 GSS에서 계속 조사되었다.

<표 2.2> 미국 GSS조사에서의 단체회원 관련 문항의 변화

| 1967년 NORC4018                                                                                                                                                                                                                                                                                                                                                                                                                                                                                                | 1974년~1994년 GSS                                                                                                                                                                                                                                                                                                                                                                                                                                                                                                                              | 2004년 GSS                                                                                                                                                                                                                                                                                                                                                                                                                                                 |
|---------------------------------------------------------------------------------------------------------------------------------------------------------------------------------------------------------------------------------------------------------------------------------------------------------------------------------------------------------------------------------------------------------------------------------------------------------------------------------------------------------------|----------------------------------------------------------------------------------------------------------------------------------------------------------------------------------------------------------------------------------------------------------------------------------------------------------------------------------------------------------------------------------------------------------------------------------------------------------------------------------------------------------------------------------------------|-----------------------------------------------------------------------------------------------------------------------------------------------------------------------------------------------------------------------------------------------------------------------------------------------------------------------------------------------------------------------------------------------------------------------------------------------------------|
| <p>이제 개인이 속한 집단과 단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기 다양한 종류의 단체 목록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종류에 속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중 어떤 곳에 속해 있습니까?</p> <p>* 응답범주: 예, 아니오, 모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목 단체</li> <li>· 봉사 클럽</li> <li>· 재향군인 단체</li> <li>· 정치 조직</li> <li>· 노동조합</li> <li>· 스포츠 단체</li> <li>· 청소년 단체</li> <li>· 학교 봉사 단체</li> <li>· 취미 또는 원예 클럽</li> <li>· 학교 남학생 사교 클럽 또는 여학생 사교 클럽</li> <li>· 국적별 단체</li> <li>· 농업 단체</li> <li>· 문학, 예술, 토론 또는 학습 클럽</li> <li>· 전문 또는 학술 학회?</li> <li>· 다른 조직(직접 기입)</li> </ul> | <p>이제 ○○가 속해 있는 단체 및 조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래에는 여러 종류의 조직 목록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회원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에 대해 하나씩 답해 주세요.</p> <p>* 응답범주: 예, 아니오, 모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목 단체</li> <li>· 봉사 클럽</li> <li>· 재향군인 단체</li> <li>· 정치 클럽</li> <li>· 노동조합</li> <li>· 스포츠 단체</li> <li>· 청소년 단체</li> <li>· 학교 봉사 단체</li> <li>· 취미 또는 원예 클럽</li> <li>· 학교 내 동아리</li> <li>· 민족/국적 단체</li> <li>· 농업 단체</li> <li>· 문학, 예술, 토론, 또는 연구 모임</li> <li>· 전문 또는 학술 단체</li> <li>· 교회(종교) 관련 단체</li> <li>· 기타 집단(직접 기입)</li> </ul> | <p>사람들은 때때로 여러 종류의 단체나 모임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각 단체 유형에 대해, 지난 12개월 동안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세요. 각 항목마다 한 칸씩만 표시해 주세요.</p> <p>*응답범주: 두 번 이상 참여함, 한두번 참여함, 소속되어 있으나 참여하지 않음, 소속되어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정치 클럽 또는 협회</li> <li>· 노동조합 또는 직업 협회</li> <li>· 교회 또는 기타 종교 단체</li> <li>· 스포츠, 취미 또는 여가 클럽</li> <li>· 자선 단체 또는 모임</li> <li>· 지역(이웃) 단체 또는 모임</li> <li>· 기타 단체 또는 모임</li> </ul> |

출처: 1) Smith, T.M.(1990)

2) <https://gss.norc.umd.edu/en/gss/get-documentation/questionnaires.html#quex-accordion-10>(2026.01.20. 검색결과)

하지만, 현대화를 위한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렸던 GSS는 인터넷, 다문화주의, 의료 윤리와 같은 새로운 미니 모듈(Mini-Modules)과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을 문항을 수용해야 하는 부담도 져야 했기에 반복 핵심(Replicating Core)은 대폭 줄여야 했고, 16개나 되는 사회참여 문항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GSS는 사회참여 척도 전체 16개 항목을 반복 핵심 문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다 10년이 지난 2004년에 ISSP Citizenship I 모듈과 함께 질문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의 종류와 수 그리고 참여도를 묻는 방식도 변경하여 다시 조사되었다. 이후 2014년 Citizenship II에서 다시 조사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1950년대부터 미국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졌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핵심적이었던 사회참여척도 문항이 축소된 형태도 아니고 핵심문항에서 제외된 것일까?

그 이유를 공개적인 문서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관련 연구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척도는 사실 1960년대에 개발된 것을 약간만 변형하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가장 선두에 있었던 Bumgartner와 Walker(1988)는 이 척도를 1950년대의 ‘유물’이라 보았다. 이들은 이 척도가 사라져가는 조직 형태(친목 단체, 재향군인회)를 과대 표현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예: 환경 옹호 단체, 여성권리 단체, 지역사회협의회 등)의 폭발적 성장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시민적 미국(new civic America)을 놓치고 오래된 시민적 미국(old civic America)만을 측정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Smith(1990)는 새로운 그룹들은 종종 정치 클럽이나 기타 범주에서 충분히 포차 가능하다고 방어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하였다.

여기에 더해 2000년대 초반 기존의 사회적 고립 척도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한다. McPherson, Smith-Lovin과 Brashears(2006)는 1985년과 2004년 GSS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인들의 사회 연결망이 1985년부터 2004년까지 급격히 축소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는 뉴욕 타임스에 “외로운 미국인은 조금 더 외로워졌다”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미국인의 사회적 고립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결과는 유사한 시기에 조사된 것과 너무나 달랐기에 Fischer는 2008년 NORC의 Tom Smith와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면서 결측값으로 코딩되어야 했을 오류 41건을 발견하였다. 이에 Fischer(2009)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ASR(American Sociological Review)에 게재하면서 연구자들에게 그 결과가 공개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코딩 오류를 넘어 사회적 고립도가 이상하리만치 높게 나왔기 때문에 McPherson 등(2006)도 2004년 GSS의 원래 응답자 1,467명 중 839명을 2006년에 재인터뷰를 진행했을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여러모로 점검하여 Fischer(2009)는 “가장 정확한 추정치는 2004년 응답자 중 고립된 사람의 실제 비율이 1985/1987년과 거의 같거나 어쩌면 그보다 적었을 것이며, 10% 미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것은 조사과정이나 데이터 처리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척도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사회참여, 네트워크, 사회적 고립 등 소위 ‘올드 패션’인 전통적인 척도가 변화된 사회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었고, 더 이상 GSS에서 초기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전통적인 사회참여 척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기존 척도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Fischer and Durham, 2022; Paxton and Rap, 2016).

## 2.2 사회자본 연구에서의 지속적 활용

하지만, GSS의 단체회원 척도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에서 활용됐다. 실제로 사회자본 연구자들이라면 반드시 읽었을 Putnam(1995)의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이라는 논문과 2000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의 제3장에서도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Putnam, 2000). 다만,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이들의 사회참여척도는 GSS에서 사용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표 2.3>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이용한 조사에서의 사회참여 문항들

| 2000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 2006년 Social Capital Community Survey                                                                                                                                                                                                                                                                         |                                                                                                                                                                                                                                                                                                                                                                                                                                                                                                                                                                                                  |
|---------------------------------------------------------------------------------------------------------------------------------------------------------------------------------------------------------------------------------------------------------------------------------------------------------------------------------------------------|---------------------------------------------------------------------------------------------------------------------------------------------------------------------------------------------------------------------------------------------------------------------------------------------------------------|--------------------------------------------------------------------------------------------------------------------------------------------------------------------------------------------------------------------------------------------------------------------------------------------------------------------------------------------------------------------------------------------------------------------------------------------------------------------------------------------------------------------------------------------------------------------------------------------------|
|                                                                                                                                                                                                                                                                                                                                                   | Wave 1                                                                                                                                                                                                                                                                                                        | Wave 2                                                                                                                                                                                                                                                                                                                                                                                                                                                                                                                                                                                           |
| * 응답 범주: 예, 아니오, 모르겠다, 응답거부<br><br>· 종교 관련 단체<br>· 스포츠 클럽, 리그 또는 야외활동 단체<br>· 청소년 단체<br>· 학부모회 또는 기타 학교 지원 단체<br>· 재향군인 단체<br>· 이웃 협회<br>· 노인 단체<br>· 자선 또는 사회복지 단체<br>· 노동조합<br>· 전문·무역·농업 또는 사업 단체<br>· 봉사 또는 친목 단체<br>· 민족, 국적 또는 시민권 단체<br>· 정치 단체<br>· 문학, 예술 또는 음악 단체<br>· 취미, 투자 또는 원예 클럽<br>· 자조 프로그램<br>· 인터넷 모임 단체<br>· 기타 종류의 클럽 또는 단체 | * 응답 범주: 예, 아니오, 모르겠다, 응답거부<br><br>· 종교 관련 단체<br>· 스포츠 클럽, 리그 또는 야외활동 단체<br>· 청소년 단체<br>· 학부모회 또는 기타 학교 지원 단체<br>· 재향군인 단체<br>· 이웃 협회<br>· 노인 단체<br>· 자선 또는 사회복지 단체<br>· 노동조합<br>· 전문·무역·농업 또는 사업 단체<br>· 봉사 또는 친목 단체<br>· 민족, 국적 또는 시민권 단체<br>· 정치 단체<br>· 문학, 예술 또는 음악 단체<br>· 취미, 투자 또는 원예 클럽<br>· 자조 프로그램 | * 응답 범주: 예, 아니오, 모르겠다, 응답거부<br><br>· 종교 관련 단체<br>· 성인 스포츠 클럽 또는 리그, 혹은 야외 활동 클럽<br>· 청소년 스포츠 리그, 스카우트, 4-H 클럽, 소년/소녀 클럽과 같은 청소년 단체<br>· 학부모회(예: PTA, PTO) 또는 기타 학교 지원/봉사 단체<br>· 재향 군인 단체<br>· 이웃협회, 주택 소유자/세입자 협회, 방범대와 같은 이웃 협회<br>· 노인 또는 고령자를 위한 클럽 또는 단체<br>· 건강 또는 소외 계층 지원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 단체 또는 사회복지 단체<br>· 노동 조합<br>· 전문직, 무역, 농업 또는 사업 협회<br>· 라이온스 클럽, 키와니스 클럽, 지역 여성 클럽, 대학 남학생/여학생 클럽과 같은 서비스 클럽 또는 친목 단체<br>· 기타 공익 단체, 정치 활동 단체, 정치 클럽 또는 정당 위원회<br>· 문학, 예술, 토론 또는 학습 그룹 또는 음악, 춤, 노래 그룹<br>· 기타 취미, 투자 또는 정원 클럽 또는 협회<br>· 특정 질병, 장애, 문제 또는 중독자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지원 그룹 또는 자조 프로그램 |

출처: 1) Roper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 2001, 「Social Capital Benchmark Survey: Methodology and Documentation」. USMISC2000-SOCCAP.

2) Roper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 2009, 「Social Capital Community Survey: Methodology and Documentation」. USMISC2006-SOCCAP.

Putnam은 오바마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에 회원으로도 참여했던 Saguaro Seminar를 이끌면서 미국사회의 공동체성과 사회적 자본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인 “Better Together”를 진행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41개 지역 및 커뮤니티 그리고 전국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tudy」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자신이 말한 사회자

본을 경험적 연구에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본격적으로 제시되었고, 사회자본을 단순히 연결·결속의 개념이 아닌 사회적 신뢰, 공식적인 회원 자격 및 그룹 참여, 이타주의, 개인 간의 비공식적인 상호 작용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광의적 이론으로 확장하였다(Saguaro Seminar, 2001)<sup>2)</sup>.

이러한 연구성과는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라는 저서로 이어졌다(Putnam, Feldstein, and Cohen, 2004). 그리고 2006년에 후속연구로 진행된 「Social Capital Community Survey」로 확대되었다. 다만,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Wave 1에서는 2000년 조사에서 인터넷 모임 단체와 기타 종류의 클럽 또는 단체 참여 여부를 제외하고 조사되었고, 4월부터 8월까지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Wave 2에서는 단체를 좀 더 자세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조사되었다. 다만, 이후에 Saguaro Seminar 팀이 주도한 후속 연구는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변형은 그동안 사회참여척도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논쟁을 수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도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토대로 유사한 시기에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영국에서는 2002년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네트워크와 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참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지지’, 그리고 ‘시민적 참여’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이름 그대로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까지 유럽의 최소 39개국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조사인 「European Social Survey」에서도 2002년과 2006년에 사회적 자본 모듈이 포함되었는데, ‘공식적 참여’라는 영역으로 포함되었다. 이 조사가 특징적인 것은 해당 활동에 참여 정도와 그 활동 단체에 친구가 있는지를 나누어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쯤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참여척도는 사회자본의 핵심적 척도로 활용된 것이지 Putnam이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척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엄밀한 방법론적 검토에 기초했다기보다는 변화되는 자발적 결사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변형되어 왔다는 것이다.

2) 사실,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단일 개념 내에 네트워크, 규범, 가치를 무분별하게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모호성과 순환성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Durlauf and Fafchamps, 2004). 또한, 각기 다른 이론적 기반하에 사회적 자본을 바라보면서 개념화에 대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대단위 사회조사에서 경험적 측정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Markowska-Przybyła,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사회참여가 핵심적인 개념이기에 퍼트남은 이것을 공식적인 정치·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대한 개인의 참여도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표 2.4> 사회참여척도가 적용한 초기 유럽 연구

| 2002년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                                                                                                                                                                                                                                           | 2002년 European Social Survey |                                                                                                                                                                                                                                                                                                                                                                                  |
|--------------------------------------------|-------------------------------------------------------------------------------------------------------------------------------------------------------------------------------------------------------------------------------------------|------------------------------|----------------------------------------------------------------------------------------------------------------------------------------------------------------------------------------------------------------------------------------------------------------------------------------------------------------------------------------------------------------------------------|
| 영역                                         | 세부분항                                                                                                                                                                                                                                      | 영역                           | 세부분항                                                                                                                                                                                                                                                                                                                                                                             |
| 사회참여<br>(네트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된 문화, 여가, 사회 단체 수</li> <li>· 참여 빈도 및 강도</li> <li>· 자원 봉사 단체 참여 여부</li> <li>· 참여 빈도 및 강도</li> <li>· 종교 활동</li> </ul>                                                                            | 공식적<br>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정도와 친구유무로 나누어 측정</li> <li>· 스포츠클럽/야외활동클럽</li> <li>· 문화취미활동단체</li> <li>· 노동조합</li> <li>· 사업,전문직, 농민단체</li> <li>· 소비자, 자동차단체</li> <li>· 인도주의적 지원, 인권, 소수민족, 이민자단체</li> <li>· 환경보호, 평화, 동물권 단체</li> <li>· 종교, 교회단체</li> <li>· 정당</li> <li>· 과학,교육, 교사/학부모단체</li> <li>· 사교클럽, 청년클럽, 은퇴자/노인 클럽, 여성클럽, 친목단체</li> <li>· 기타 자원봉사단체</li> </ul> |
| 사회적<br>네트워크와<br>사회적지지<br>(네트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을 만나고 이야기 하는 빈도</li> <li>· 가상 네트워크: 연락 빈도 및 강도</li> <li>· 가까운 곳에 사는 친한 친구나 친척 수</li> <li>·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li> <li>· 도움을 주는 사람</li> <li>· 삶에 대한 주관적인 통제감</li> <li>· 삶의 만족도</li> </ul> |                              |                                                                                                                                                                                                                                                                                                                                                                                  |
| 시민적 참여<br>(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수준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li> <li>·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li> <li>· 지역/국가 문제에 대한 정보 습득 정도</li> <li>· 공무원 또는 정치 대표와의 접촉</li> <li>· 지역 행동 그룹 참여/빈도</li> <li>· 투표 성향</li> </ul>                            |                              |                                                                                                                                                                                                                                                                                                                                                                                  |

출처: 1) UK National Statistics, 2002,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2) europeansocialsurvey.org: Source Questionnaire((Round 1, 2002/3)

### 2.3 척도 논쟁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

흥미로운 것은 사회참여 척도를 둘러싼 해외의 논쟁과 무관하게 국내에서는 여전히 사회참여 척도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에서는 1999년부터 단체 참여를 조사하고 있다. 최초에는 사교단체, 종교단체, 스포츠·레저단체, 사회봉사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기타 단체 등 8개의 단체의 참여여부와 함께 가장 적극적 활동분야를 추가로 묻는 방식이었다. 이후 2003년에 친목 및 사고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등으로 단체명이 약간 바뀌었고, 사회봉사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로 대체되어 2006년에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다만, 2009년에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에서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용 단체’로 단체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지역 사회모임’이 추가되어 현재와 같은 문항이 확정되었으며, 가장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항이 2003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서도 조사되고 있다. 이 조사는 말 그대로 한국판 GSS이기 때문에 미국의 GSS 척도를 기반으로 하되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소 변형한 것이다. 다만, 2023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조직이나 모임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사실 KGSS에서도 이 척도를 제외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GSS에서와 마찬가지로 척도가 가지고 있는 시의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03년부터 조사된 반복 핵심 문항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2.5> SRC 한국종합사회조사와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의 사회참여척도 문항

| 조사명                       | 조사문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베이리서치센터<br>한국종합사회조사      | 귀하는 다음 조직이나 공식 모임의 구성원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귀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th><th>구성원<br/>적극적 참여</th><th>구성원, 거의<br/>참여안함</th><th>구성원 아님</th></tr><tr><td>1) 정치 모임</td><td>①</td><td>②</td><td>③</td></tr><tr><td>2) 주민협회, 반상회</td><td>①</td><td>②</td><td>③</td></tr><tr><td>3) 사회봉사 클럽</td><td>①</td><td>②</td><td>③</td></tr><tr><td>4)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td><td>①</td><td>②</td><td>③</td></tr><tr><td>5) 종교집단</td><td>①</td><td>②</td><td>③</td></tr><tr><td>6) 동창회(동창 모임)</td><td>①</td><td>②</td><td>③</td></tr><tr><td>7) 여가 모임(취미 및 스포츠)</td><td>①</td><td>②</td><td>③</td></tr><tr><td>8) 노동조합</td><td>①</td><td>②</td><td>③</td></tr><tr><td>9) 직업·직능 단체, 상거래 단체</td><td>①</td><td>②</td><td>③</td></tr></table> |               | 구성원<br>적극적 참여   | 구성원, 거의<br>참여안함 | 구성원 아님                  | 1) 정치 모임 | ① | ②                    | ③ | 2) 주민협회, 반상회 | ①                            | ② | ③ | 3) 사회봉사 클럽              | ① | ② | ③       | 4)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 ① | ②                         | ③ | 5) 종교집단 | ①       | ② | ③ | 6) 동창회(동창 모임)             | ① | ② | ③        | 7) 여가 모임(취미 및 스포츠) | ① | ② | ③ | 8) 노동조합 | ① | ② | ③ | 9) 직업·직능 단체, 상거래 단체 | ① | ② | ③ |
|                           |                                                                                                                                                                                                                                                                                                                                                                                                                                                                                                                                                                                                                                                                   | 구성원<br>적극적 참여 | 구성원, 거의<br>참여안함 | 구성원 아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정치 모임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민협회, 반상회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회봉사 클럽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종교집단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동창회(동창 모임)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여가 모임(취미 및 스포츠)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노동조합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직업·직능 단체, 상거래 단체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데이터처<br>사회조사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th><th>참여하였다</th><th>참여하지 않았다</th></tr><tr><td>1) 친목·사교단체(계 모임, 동창회 등)</td><td>①</td><td>②</td></tr><tr><td>2) 취미, 스포츠, 여가 활동 단체</td><td>①</td><td>②</td></tr><tr><td>3)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td><td>①</td><td>②</td></tr><tr><td>4)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td><td>①</td><td>②</td></tr><tr><td>5) 학술단체</td><td>①</td><td>②</td></tr><tr><td>6) 이익단체(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td><td>①</td><td>②</td></tr><tr><td>7) 정치단체</td><td>①</td><td>②</td></tr><tr><td>8) 지역사회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td><td>①</td><td>②</td></tr><tr><td>9) 기타( )</td><td>①</td><td>②</td></tr></table>                                                                      |               | 참여하였다           | 참여하지 않았다        | 1) 친목·사교단체(계 모임, 동창회 등) | ①        | ② | 2) 취미, 스포츠, 여가 활동 단체 | ① | ②            | 3)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 ① | ② | 4)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 ① | ② | 5) 학술단체 | ①                   | ② | 6) 이익단체(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 | ① | ②       | 7) 정치단체 | ① | ② | 8) 지역사회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 ① | ② | 9) 기타( ) | ①                  | ② |   |   |         |   |   |   |                     |   |   |   |
|                           |                                                                                                                                                                                                                                                                                                                                                                                                                                                                                                                                                                                                                                                                   | 참여하였다         | 참여하지 않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친목·사교단체(계 모임, 동창회 등)                                                                                                                                                                                                                                                                                                                                                                                                                                                                                                                                                                                                                                           | ①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취미, 스포츠, 여가 활동 단체                                                                                                                                                                                                                                                                                                                                                                                                                                                                                                                                                                                                                                              | ①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 ①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 ①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학술단체                                                                                                                                                                                                                                                                                                                                                                                                                                                                                                                                                                                                                                                           | ①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이익단체(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                                                                                                                                                                                                                                                                                                                                                                                                                                                                                                                                                                                                                                         | ①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정치단체                                                                                                                                                                                                                                                                                                                                                                                                                                                                                                                                                                                                                                                           | ①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지역사회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 ①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기타( )                  | ①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1)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누적 설문지(2003-2023)

2)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MDIS에서 제공되는 조사표

또한 사회참여 척도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조사된 결과는 국가데이터처의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가족·공동체 영역에서 ‘사회단체참여율’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이 조사는 2013년 조사항목을 전면 개편하면서 사회참여 부문이 포함되었고, 해당 문항은 매년 조사되고 있다. 다만, ‘자원봉사, 기부단체’와 ‘사회적 경제조직’과 관련된 하위 문항은 2015년부터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등과 같이 KGSS 보다 참여도를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다.

&lt;표 2.6&gt;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의 사회참여척도 조사현황

| 하위문항                 | 2013년 | 2014년 | 2015~2024년 |
|----------------------|-------|-------|------------|
| 정당                   | ○     | ○     | ○          |
| 노동조합단체, 사업자 단체, 직업조합 | ○     | ○     | ○          |
| 종교단체                 | ○     | ○     | ○          |
| 동호회                  | ○     | ○     | ○          |
| 시민단체                 | ○     | ○     | ○          |
| 지역사회 공공모임            | ○     | ○     | ○          |
| 동창회, 향우회             | ○     | ○     | ○          |
| 자원봉사, 기부 단체          | ×     | ×     | ○          |
| 사회적 경제조직             | ×     | ×     | ○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문지(저자에 의해 재구성)

이처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참여척도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적십자 후원이나 활동 여부보다 동네 친목 모임 참여 여부가 일반 시민의 사회참여를 측정하는 데 더 타당하다는 Paxton과 Rap(2016)의 주장을 되풀이하려는 것이 아니며, Fischer와 Durham(2022)처럼 기존 척도의 틀을 유지한 채 새로운 대안적 방법론을 제안하려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첫째, 기존의 사회참여 척도가 정치적 행동이나 사회 자본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축 및 활용 과정에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했음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향후 연구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함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앞의 논의에서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이 남아있다. 그것은 Guillen 등(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소속된 단체의 수를 합산하여 사회참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왜 문제인지를 국내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 3.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 3.1 연구자료

이러한 문제의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생산하는 사회조사 원자료이다. 사회조사는 1977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구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5개 사회분문에 대해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조사체계가 구축된 것은 2008년부터이다. 사회조사는 조사연도별로 표본가구 규모는 다르다. 다만, 과거에는 인구주택 총조사 일반조사구를 모집단으로 사용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등록센서스의 일반 조사구를 활용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한 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2019년, 2021년, 2023년 조사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연구의 주제인 “사회참여척도”가

포함된 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격년제로 시행되는 사회조사에서 사회참여 척도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조사된 것은 2019년부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에서는 기타를 제외하고 8개의 단체(친목·사고단체, 취미, 스포츠, 여가 활동 단체, 종교 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 하에 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8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평가를 시행하였다.

### 3.2 연구방법

통상 바람직한 사회적도의 기준으로 신뢰도, 민감성, 포괄성,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타당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이하 IRT)을 적용하였다. 관찰된 총점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고전적 검사이론과 달리 IRT는 응답자의 잠재적 특성과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 확률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다만, 척도의 타당도 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Terwee, Crins, Boers, de Vet와 Roorda(2019)의 연구를 따랐다.

IRT 모형에 따르면, 문항이 타당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 국소적 독립성(local independence), 그리고 단조성(monotonicity)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측정불변성, 그리고 변별도와 난이도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먼저, 단일차원성은 (식 3.1)과 같이 하나의 검사가 응답자가 지닌 ‘하나의 특성(trait)’만을 측정해야 한다는 가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theta_j$ 는 응답자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단일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나의 잠재적 변인이 존재하는가를 분석한다. 다만, 통상 단일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인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연속형이며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참여척도는 이분형 문항이기에 폴리코릭 상관 행렬(polychoric correlations matrix)로 변환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Kolenikov and Angeles, 2004).

$$P_{ij} = P(X_{ij} = 1 \mid \theta_j, a_i, b_i, \dots) \quad (3.1)$$

두 번째로 국소적 독립성은 아래의 (식 3.2)와 같이 이항문항이라고 가정할 때, 동일한 능력 수준을 가진 응답자가 한 문항에 답한 결과가 다른 문항의 응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다시 말해서, 잠재변인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배적인 요인을 제어한 후 항목 응답 간에 유의미한 공분산이 없는지를 점검하여야 하기에 요인분석 이후 잔차 상관 행렬이 0.20보다 큰가로 판단하였다.

$$P(X_i = x_i, X_j = x_j \mid \theta) = P(X_i = x_i \mid \theta) \times P(X_j = x_j \mid \theta) \quad (3.2)$$

세 번째, 통상 IRT 모형에서는 문항반응함수가 S자형 곡선이라고 가정하는데, 이 곡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단조성은 응답자의 능력을 향상할수록 어떤 문항에 정답을 맞힐 확률이 일관되게 증가해야 한다는 원리다. 따라서  $\theta$ 라는 능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항 문항  $i$ 에 대한 문항 반응 함수를  $P_i(\theta)$ 라고 할 때, 단조성은  $P_i(\theta_1) < P_i(\theta_2)$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단조성은 Mokken 척도화로 비모수 IRT 모형을 적합시켜 평가했다. 척도화 계수  $H$ 를 계산하여 항목의 척도화 계수가 최소 0.30이고 전체 척도의 척도화 계수가 최소 0.50인 경우 단조성이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네 번째로, 측정불변성은 동일한 척도를 서로 다른 집단이나 시점에 적용하였을 때 동일한 의미와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에 측정불변성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 문항이 동일한 잠재 능력 수준을 가진 두 집단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DIF(Differential Item Functioning)가 존재하는지를 멘텔-헨젤(Mantel-Haenszel, 이하 MH)  $\chi^2$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chi^2$  분석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동일한 점수를 갖는 준거집단과 비교집단(예: 남성과 여성)의 정답 여부 간의 독립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다만,  $\chi^2$  통계량은 DIF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식 3.3)과 같이 오즈비를 통해 파악하였다. 여기서, 총점이  $k$ 인 전체 사례수를  $n_k$ 라고 할 때,  $n_{11k}$ 와  $n_{21k}$ 는 정답을 맞춘 준거집단과 비교집단의 사례 수이고,  $n_{12k}$ 와  $n_{22k}$ 는 오답인 사례 수이다.

$$OR_{MH} = \frac{\sum n_{11k}n_{22k}/n_k}{\sum n_{12k}n_{21k}/n_k} \quad (3.3)$$

이와 함께 사회참여척도의 변별도와 난이도를 분석하기 위해 Birnbaum(1968)이 제안한 이모수로지스틱모형(Two-parameter logistic model, 이하 2PL)을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아래의 식과 같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특정 응답자의 잠재특성( $\theta_j$ )에 따라 각 문항의 변별도( $a_i$ )와 난이도( $b_i$ )가 다르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난이도 추정치는 잠재특성 척도에서  $P(Y=1|\theta) = 0.5$ 가 되는 지점에 해당하며,  $\theta$ 의 평균이 0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값이 음수이면 난이도가 낮고, 양의 값이면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때 도출되는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의 기울기가 변별도이다.

$$\Pr(Y_{ij} = 1|\theta_j) = \frac{\exp\{a_i(\theta_j - b_i)\}}{1 + \exp\{a_i(\theta_j - b_i)\}}, \quad \theta_j \sim N(0,1) \quad (3.4)$$

## 4. 연구결과

### 4.1 단일차원성과 국소적 독립성 가정 검증 결과

사회참여척도의 타당성과 관련된 요소 중 단일차원성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는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만, 2023년의 결과는 직각회전을 실

시한 이후의 요인적재량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된 동일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윳값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19년과 2021년은 요인 1개가 적합한 것에 비해 2023년은 요인 2개가 최적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의 경우 요인이 1개인 모형이 적합한데도, ‘종교단체’와 관련된 요인적재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종교단체’의 경우도 다른 문항들에 비해 요인적재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현재 사회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있는 사회참여척도는 단일차원성이 일관되게 성립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김승현, 2008). 즉, 현재의 척도가 사회참여라는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1> 사회참여척도의 연도별 요인적재량

| 문항     | 2019년 | 2021년 | 2023년 |      |
|--------|-------|-------|-------|------|
|        | 요인1   | 요인1   | 요인1   | 요인2  |
| 친목사교단체 | 0.68  | 0.66  | 0.23  | 0.84 |
| 종교단체   | 0.39  | 0.55  | 0.42  | 0.19 |
| 취미여가단체 | 0.70  | 0.67  | 0.13  | 0.90 |
| 시민사회단체 | 0.76  | 0.81  | 0.71  | 0.36 |
| 학술단체   | 0.69  | 0.79  | 0.59  | 0.40 |
| 이익단체   | 0.67  | 0.81  | 0.68  | 0.30 |
| 정치단체   | 0.74  | 0.87  | 0.88  | 0.12 |
| 지역사회모임 | 0.53  | 0.72  | 0.63  | 0.14 |

주: 1) polychoric correlations 행렬로 변환 후 요인분석을 실시함

2) principal component factor 방법을 통해 요인을 추출한 후 orthogonal varimax 방법을 통해 요인회전을 실시한 결과임

다음으로 문항 간 국소적 독립성이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간 잔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 모든 연도에서 잠재변인이 1개라는 가정 하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후에 잔차를 추정하여 이것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것이다. 다만, 국소적 독립성 가정이 위배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Terwee, Crins, Boers, de Vet와 Roorda(2018)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잔차 상관계수 절댓값이 0.2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2021년 사회참여척도 문항 중 ‘친목사교단체’ 문항과 ‘취미여가단체’ 문항 간에 국소적 독립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친목사교단체’와 ‘정치단체’, ‘취미여가단체’와 ‘정치단체’, ‘학술단체’와 ‘지역사회모임’ 간에도 국소적 독립성을 위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취미여가단체’와 ‘친목사교단체’ 간의 국소적 독립성이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두 하위문항 간에 개념적 중복(conceptual overlap)이 발생하여 응답자들이 두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두 활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정치단체’와 다른 단체 간의 독립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정치참여는 여타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진

활동이기에 이론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참여척도가 단순히 문항 간 중복을 넘어 측정 자체의 타당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앞서 2023년 사회참여 척도의 경우 단일차원성도 성립되지 않았었는데 국소적 독립성 가정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향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2023년 조사는 2019년 등록센서스의 일반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특성이 변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2023년부터 한국사회의 사회참여 양식이 어떤 특수한 외적 요인(COVID-19 등)에 의해 크게 변화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척도의 타당성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표 4.2> local independence 검정을 위한 문항 간 잔차 상관관계

| 연도   | 문항     | 천목사교<br>단체    | 종교<br>단체 | 취미여가<br>단체    | 시민사회<br>단체 | 학술<br>단체      | 이익<br>단체 | 정치<br>단체 | 지역사회<br>모임 |
|------|--------|---------------|----------|---------------|------------|---------------|----------|----------|------------|
| 2019 | 천목사교단체 | 0.000         |          |               |            |               |          |          |            |
|      | 종교단체   | 0.040         | 0.000    |               |            |               |          |          |            |
|      | 취미여가단체 | 0.115         | -0.022   | 0.000         |            |               |          |          |            |
|      | 시민사회단체 | -0.085        | 0.081    | 0.036         | 0.000      |               |          |          |            |
|      | 학술단체   | -0.059        | 0.021    | 0.008         | 0.055      | 0.000         |          |          |            |
|      | 이익단체   | 0.005         | -0.070   | -0.032        | -0.047     | 0.048         | 0.000    |          |            |
|      | 정치단체   | -0.062        | -0.054   | -0.052        | 0.038      | 0.040         | 0.103    | 0.000    |            |
|      | 지역사회모임 | 0.105         | -0.017   | -0.006        | 0.014      | -0.070        | -0.030   | 0.031    | 0.000      |
| 2021 | 천목사교단체 | 0.000         |          |               |            |               |          |          |            |
|      | 종교단체   | -0.051        | 0.000    |               |            |               |          |          |            |
|      | 취미여가단체 | <b>0.213</b>  | -0.091   | 0.000         |            |               |          |          |            |
|      | 시민사회단체 | -0.113        | -0.014   | -0.090        | 0.000      |               |          |          |            |
|      | 학술단체   | -0.133        | -0.058   | -0.078        | -0.046     | 0.000         |          |          |            |
|      | 이익단체   | -0.134        | -0.112   | -0.115        | -0.102     | 0.033         | 0.000    |          |            |
|      | 정치단체   | -0.155        | -0.100   | -0.134        | -0.029     | 0.002         | 0.056    | 0.000    |            |
|      | 지역사회모임 | -0.065        | -0.075   | -0.160        | 0.006      | -0.157        | -0.064   | 0.020    | 0.000      |
| 2023 | 천목사교단체 | 0.000         |          |               |            |               |          |          |            |
|      | 종교단체   | -0.074        | 0.000    |               |            |               |          |          |            |
|      | 취미여가단체 | 0.170         | -0.080   | 0.000         |            |               |          |          |            |
|      | 시민사회단체 | -0.115        | -0.008   | -0.089        | 0.000      |               |          |          |            |
|      | 학술단체   | -0.133        | -0.077   | -0.044        | -0.074     | 0.000         |          |          |            |
|      | 이익단체   | -0.100        | -0.150   | -0.127        | -0.122     | 0.016         | 0.000    |          |            |
|      | 정치단체   | <b>-0.230</b> | -0.058   | <b>-0.205</b> | -0.031     | -0.030        | 0.050    | 0.000    |            |
|      | 지역사회모임 | -0.009        | -0.069   | -0.177        | -0.004     | <b>-0.214</b> | -0.141   | 0.030    | 0.000      |

주: 문항 간 잔차 상관관계는 1-요인 분석을 실시한 이후에 산출된 결과임

## 4.2 문항의 단조성 가정 검증 결과

다음으로 사회참여척도가 연도별로 단조성 가정을 만족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Mokken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Loevinge의 H 계수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H 계수는 문항별로 산출되는  $h_i$ 와 척도 전체에 대한 계수 H로 나눌 수 있다.  $h_i$ 의 값은 문항 간 위계적 순서를 위반한 것으로 관찰된 거트만 오류의 수와 문항 간 단조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기대되는 오류의 수를 비교하여 산출된다.

$h_i$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 문항이 위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응답자들이 잠재 특성에 따라 일관되게 응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척도화 계수 H의 값이 0.4~0.5 미만이면 중간 수준의 척도로 보고, 0.5 이상이어야만 적합한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실 사회참여 척도의 문항을 보면 참여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위계성을 가지고 있고 단조성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Mokken 분석에서도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연도별 척도화 계수를 보았을 때 사회참여 척도 전체가 위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단조성 또는 위계성 가정을 위배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교단체’와 ‘지역사회모임’이다. 이것들의  $h_i$ 계수는 모든 연도에 걸쳐 일관되게 0.3 미만이다. 그리고 ‘학술단체’, ‘이익단체’ 문항의 경우에는 2019년과 2023년에 낮은  $h_i$  계수값을 가지고 있어 문항의 위계성을 저해하는 문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러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친목사교단체’, ‘취미여가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단체’를 핵심문항으로 하여 Mokken 분석을 시행해 보면 2021년이 약간 낮지만, 전체적으로 척도화 계수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문항 간 위계성이 더 잘 발현되는 척도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단체’ 간의 위계성이 연도별로 약간의 변화는 존재한다.

<표 4.3> 단조성 검증을 위한 Mokken 분석 결과: Loevinger 계수

| 문항     | 2019년 |      | 2021년 |      | 2023년 |      |
|--------|-------|------|-------|------|-------|------|
|        | 전체문항  | 핵심문항 | 전체문항  | 핵심문항 | 전체문항  | 핵심문항 |
| 친목사교단체 | 0.47  | 0.52 | 0.41  | 0.47 | 0.51  | 0.57 |
| 종교단체   | 0.17  | -    | 0.22  | -    | 0.20  | -    |
| 취미여가단체 | 0.35  | 0.50 | 0.37  | 0.47 | 0.40  | 0.54 |
| 시민사회단체 | 0.31  | 0.48 | 0.34  | 0.44 | 0.33  | 0.53 |
| 학술단체   | 0.28  | -    | 0.32  | -    | 0.28  | -    |
| 이익단체   | 0.25  | -    | 0.34  | -    | 0.28  | -    |
| 정치단체   | 0.35  | 0.53 | 0.46  | 0.54 | 0.38  | 0.47 |
| 지역사회모임 | 0.20  | -    | 0.27  | -    | 0.23  | -    |
| 척도화 계수 | 0.29  | 0.51 | 0.44  | 0.47 | 0.47  | 0.55 |

만약에 단조성이 성립된다면, 사회참여척도의 구성개념이 단일 연속체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단조성이 위반된다는 것은 구성개념이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조성 성립 여부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보가더스가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개발했었던 이유와도 밀접히 연관되는 실제 연구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단조성이 성립될 경우에는 각 활동에 참여할 경우 1의 값을 주고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정을 위반하면 관례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가중치를 부여하든, 다차원 모델 또는 잠재계층분석 등과 같은 또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여 값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 4.3 측정불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IF 분석 결과

사회참여척도가 측정불변성을 가졌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별 DIF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은 총 5개로 나누었고, 각 집단은 2개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연령은 평균연령을 기준으로 하였고,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었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취업상태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앞서 연구방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MH- $\chi^2$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특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또는 적게 참여하는 단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다만, 그 상대적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오즈비를 살펴보았다. <표 4.4>는 오즈비를 제시한 것이고, 유의확률은  $\chi^2$  검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사회참여 척도를 통해 참여율을 산출할 때 특정 집단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단체 참여형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종교단체’, ‘지역사회모임’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에게 유리하고, ‘취미여가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는 저연령층에게 유리한 문항임을 알 수 있다. 반면, 2019년을 예외로 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나 ‘정치단체’의 경우에는 연령측면에서는 측정불변성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2019년을 제외하고 ‘친목사교단체’와 ‘지역사회모임’, 교육수준별로는 ‘친목사교단체’와 ‘정치단체’에서 측정불변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혼인상태나 취업상태와 관련해서는 모든 참여단체 부문에서 해당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쉽게 말하면, 현재의 사회참여 척도는 혼인상태, 취업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단순히 측정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에 따라 개념 자체가 불일치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집단들 간에 사회참여라는 구성개념 자체가 달라서 사회참여 정도를 이 척도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혼인상태에 따른 사회참여도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분석 결과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사회참여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자. 연구자는 기쁜 마음으로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주장하고자 할 것이나, 이러한 결과가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인지 DIF로 인한 것인지를 통계학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원론적으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lt;표 4.4&gt; DIF(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분석결과: 오즈비(odds ratio)

| 집단   | 연도   | 친목사교<br>단체 | 종교<br>단체 | 취미여가<br>단체 | 시민사회<br>단체 | 학술<br>단체 | 이익<br>단체 | 정치<br>단체 | 지역사회<br>모임 |
|------|------|------------|----------|------------|------------|----------|----------|----------|------------|
| 연령   | 2019 | 1.39***    | 1.91***  | 0.33***    | 0.66***    | 0.27***  | 0.48***  | 1.00     | 3.66***    |
|      | 2021 | 1.06       | 2.02***  | 0.44***    | 1.15       | 0.24***  | 0.59***  | 1.34     | 2.80***    |
|      | 2023 | 1.40***    | 1.79***  | 0.34***    | 1.00       | 0.29***  | 0.49***  | 1.24     | 3.77***    |
| 성별   | 2019 | 1.24***    | 0.48***  | 1.68***    | 0.79***    | 1.21**   | 2.26***  | 2.34***  | 0.85***    |
|      | 2021 | 1.00       | 0.50***  | 1.84***    | 0.74***    | 0.83*    | 3.10***  | 1.85***  | 1.08       |
|      | 2023 | 1.02       | 0.47***  | 1.65***    | 0.78***    | 1.24***  | 2.48***  | 1.64***  | 1.00       |
| 교육수준 | 2019 | 1.04       | 0.67***  | 1.98***    | 0.73***    | 6.79***  | 1.82***  | 1.12     | 0.27***    |
|      | 2021 | 0.95       | 0.67***  | 1.70***    | 0.66***    | 3.71***  | 1.77***  | 1.15     | 0.43***    |
|      | 2023 | 0.90**     | 0.67***  | 1.94***    | 0.73***    | 6.27***  | 1.93***  | 1.22     | 0.31***    |
| 혼인상태 | 2019 | 2.03***    | 0.95     | 0.54***    | 0.53***    | 0.43***  | 1.25**   | 1.49**   | 2.31***    |
|      | 2021 | 1.11*      | 1.17***  | 0.63***    | 0.93       | 0.45***  | 1.93***  | 2.26***  | 2.77***    |
|      | 2023 | 1.86***    | 0.91**   | 0.55***    | 0.76***    | 0.43***  | 1.27**   | 1.41*    | 2.15***    |
| 취업상태 | 2019 | 2.01***    | 0.57***  | 0.91**     | 0.58***    | 0.99     | 7.38***  | 1.83***  | 1.03       |
|      | 2021 | 1.33***    | 0.61***  | 1.00       | 0.90       | 0.86     | 4.55***  | 1.64*    | 1.30***    |
|      | 2023 | 1.57***    | 0.57***  | 0.91**     | 0.80***    | 1.16*    | 6.49***  | 1.37*    | 1.03       |

\* &lt; 0.05, \*\* &lt; 0.01, \*\*\* &lt; 0.001

주: 유의확률은 Mantel - Haenszel  $\chi^2$ -검정의 결과임

#### 4.4 사회참여척도의 문항별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척도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2PL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4.1>과 <그림 4.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먼저, 3개년에 걸쳐 문항별 난이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친목사교단체’나 ‘취미여가단체’의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단체활동에 많이 참여함을 의미한다. 반면, 시민단체활동의 경우에는 최소 1.96 이상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별도가 1점 이상일 경우 좋은 것으로, 1.7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종교단체’와 ‘지역사회모임’ 문항은 변별도가 너무 낮지만, ‘정치단체’는 3개년에 걸쳐 변별도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친목사교’, ‘취미여가 활동’ 참여문항은 저난이도 문항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활동을 측정하는 문항이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 문항은 고난이도 문항으로 소수만 참여하는 문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난이도만 보더라도 사회참여척도는 서로 다른 구성개념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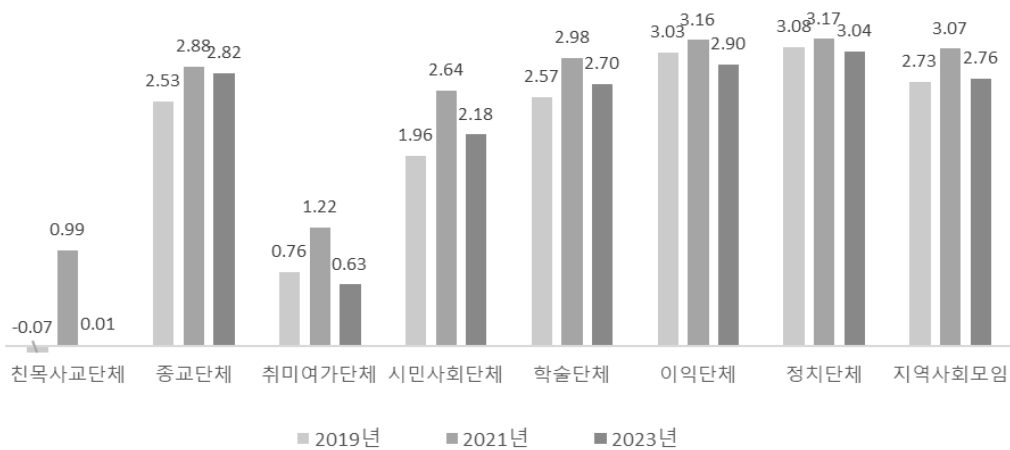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지역사회모임의 낮은 변별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참여라는 구성개념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앞서 Mokken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정치단체 참여 여부는 3개년에 걸쳐 높은 변별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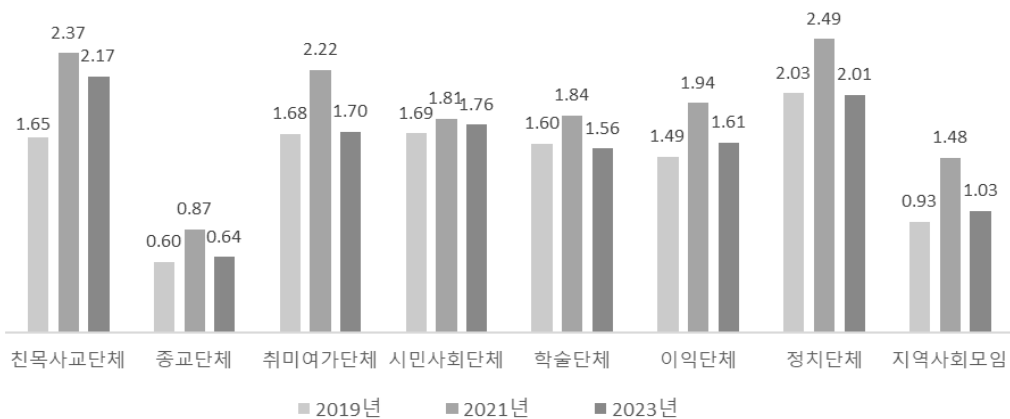
단체 참여 문항 자체가 사회참여 척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항으로, 이 문항 하나로도 상당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높은 변별도가 좋은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평가할 필요는 있다.

하여튼, 현재와 같은 사회참여척도는 중간 수준의 사회참여 성향을 잘 측정하지 못하고 정보가 양극단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참여 수준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사회참여척도의 문항별 난이도



<그림 4.2> 사회참여척도의 문항별 변별도



지금까지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2023년 조사된 사회참여척도는 다른 연도와 비교했을 때 단일차원성과 국소적 독립성이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단조성이 문항별로 다르게 성립되어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은

잘못된 척도 변환임을 보여준다.

또한 하위문항별로 측정불변성이 다르게 충족되기에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의 사회참여척도는 중간 난이도 문항이 매우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정치단체와 관련된 하위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문항들은 변별도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

<표 4.5> 사회참여척도의 3개년 간 문항분석 결과 종합

| 측정 특성          | 2019년                            | 2021년                         | 2023년                                                       | 비고                       |
|----------------|----------------------------------|-------------------------------|-------------------------------------------------------------|--------------------------|
| 단일차원성          | ✓ (1개 요인)<br>단, 종교단체 낮은<br>적재량   | ✓ (1개 요인)                     | ✗ (2개 요인 최적)                                                | 2023년 위배                 |
| 국소적<br>독립성     | ✓ (위배 없음)                        | △ (1개 쌍 위배)<br>친목↔취미(0.213)   | ✗ (4개 쌍 위배)<br>친목↔정치(0.230)<br>취미↔정치(0.205)<br>학술↔지역(0.214) | 2023년 악화                 |
| 단조성<br>(전체문항)  | ✗ (H=0.29)<br>부적합                | △ (H=0.44)<br>중간수준            | △ (H=0.47)<br>중간수준                                          | 종교, 지역사회모임<br>일관되게 H<0.3 |
| 단조성<br>(핵심4문항) | ✓ (H=0.51)                       | △ (H=0.47)<br>중간수준            | ✓ (H=0.55)                                                  | 친목·취미·시민·정치<br>포함시       |
| 측정불변성<br>(연령)  | △ 시민사회·정치만<br>성립(75% 위배)         | ✓ 시민사회·정치<br>성립(75% 위배)       | ✓ 시민사회·정치<br>성립(75% 위배)                                     | 종교, 지역사회 등<br>고령층 편향     |
| 측정불변성<br>(성별)  | ✗ (모든 문항 위배)                     | △ 친목·지역사회만<br>성립(75% 위배)      | △ 친목·지역사회만<br>성립(75% 위배)                                    | 대부분 문항<br>성별 편향          |
| 측정불변성<br>(교육)  | △ 친목·정치만<br>성립(75% 위배)           | △ 친목·정치만<br>성립(75% 위배)        | △ 친목·정치만<br>성립(75% 위배)                                      | 학술단체 등에서<br>고학력 편향       |
| 측정불변성<br>(혼인)  | ✗ (100% 위배)                      | ✗ (100% 위배)                   | ✗ (100% 위배)                                                 | 모든 문항 위배                 |
| 측정불변성<br>(취업)  | ✗ (100% 위배)                      | ✗ (100% 위배)                   | ✗ (100% 위배)                                                 | 모든 문항 위배                 |
| 난이도 분포         | △ 양극화<br>(친목·취미 낮음<br>시민사회≥1.96) | △ 양극화<br>(친목·취미낮음<br>공적참여 높음) | △ 양극화<br>(사교 vs.공적<br>명확히 이분화)                              | 중간 난이도 문항<br>부족          |
| 변별도<br>(문항별)   | 우수: 정치단체<br>불량:종교·지역사회           | 우수: 정치단체<br>불량:종교·지역사회        | 우수: 정치단체<br>불량:종교·지역사회                                      | 정치단체만<br>일관된 우수성         |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사회참여척도를 관행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그 논리적 근거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데이터처 「사회조사」의 사회참여척도를 이용하여 5개의 엄밀한 통계적 검증 과정(단일차원성, 국소적 독립성, 단조성, 측정불변성, IRT 모수 추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와 같은 단순 합산하여 사용하는 관행은 방법론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사회참여척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는 결과를 얻었다.

다시 사회참여척도의 발전사를 되짚어 보자. 사회참여척도의 개발과 이용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70여 년간 방법론적 엄밀성이 매우 결여된 척도였다는 것이다. Putnam에 의해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나 그 출발은 명확한 이론적 근거에 근거하지 못했고, 사회조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증과정 없이 무비판적으로 축소/확대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Morton과 동료들(2024)은 사회참여의 4가지 차원을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출판된 사회참여 논문 99개를 분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사회참여 측정을 위해 총 85개의 척도가 이용되었으며, 이 중에서 54개(63.5%)가 참여의 범위를 측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47개(55.3%)는 강도, 4개(47%)는 지속 기간, 6개(7.1%)가 관여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개의 척도 중 4가지 차원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도 15개(17.6%)나 되었으며, 31개(36.4%)는 하나의 차원만, 37개(43.5%)는 두 개의 차원, 2개(2.4%)는 세 개의 차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 연구자들도 사회참여 척도를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명확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다른 척도로 대체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은 어찌면 관습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의 사회참여척도는 단일 연속체가 아니라 뚜렷한 이분화(친목 사교, 취미여가 vs. 시민사회, 정치)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약 기존의 척도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독립적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분석에서도 각각 나누어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혼인상태와 취업상태에 따라 측정불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집단 간 비교 연구에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사회참여는 보편적 개인 특성이 아니라, 생애주기,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맥락 의존적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를 고려한 대안적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 2023년 사회참여척도는 단일차원성과 국소적 독립성이 모두 위배되어 IRT 모델 적용이 부적절한 상태이다. 이 연도 데이터로 산출된 사회참여 점수의 타당성은 매우 낮으며, 다른 연도와 비교도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데이터처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별도의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척도는 연령, 성별, 교육, 혼인, 취업상태 등 거의 모든 주요 변수에서 측정불변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 시 주의해야 함을 이용자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겠다.

연구자들은 현재의 척도를 리커트 척도처럼 단순히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단조성 가정 위배, 문항 간 위계성 불명확, 문항별 변별도 상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잘못된 결론을 얻거나 오용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개별 문항별 분석을 병행하고 문항별 DIF 검증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사용됐고, 국내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사회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이 척도를 당장 폐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 연구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후속 분석을 통해 현재의 결과가 특이한 것인지도 재검증하는 과정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종합사회조사나 사회통합실태조사 등 다른 조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결과만을 이용하여 사회조사를 이용하여 사회참여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문항인 정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참여 문항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두 문항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별도와 측정불변성이 성립되었기에 공식적 사회참여 지표로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DIF 존재하므로 이들 변수로 집단 비교 시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친목사교단체나 취미여가단체는 사교적 참여 현황을 파악하는 보조적 지표 정도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종교단체 문항의 경우에는 사회참여와 독립적 현상으로 보고 종교 연구가 아니면 되도록 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의 표준을 설정하고 선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참여척도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면 한다. 사회자본이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사회참여척도가 사회자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연구자는 현재 척도의 한계점을 인지하면서 매우 신중히 사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국가데이터처가 주도가 되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형 척도를 개발하고 보급·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사회과학 연구자로서 바람이다.

(2025년 5월 26일 접수, 2026년 2월 13일 수정, 2026년 2월 25일 채택)

## 참고문헌

- 김승현.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67-88.
- 김준환. (2005). 사회자본의 개념과 측정방법에 관한 고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 311-329.
- 박우순. (2004). 사회자본의 낭만적 애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 <한국조직학회보>, 1(2), 81-119.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한국정당학회보>, 12(2), 221-244.
- 이영재. (2018). 사회적 자본 개념의 미분화 비판: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중심으로: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4(2), 143-166.
- 이혜령, 최희정. (202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불안. <가정과삶의질연구>, 42(4), 115-134.
- 정순돌, 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최아영 (2022).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42(4), 326 - 346.
-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누적 설문지(2003-2023)>.
- Baumgartner, F.R., and Walker, J.L. (1988). Survey research and membership in voluntary associ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4), 908-928.
- Birnbaum, Z.W. (1968). *On the importance of different components in a multicomponent system* (No. TR54).
- Bhandari H, and K. Yasunobu (2009). What is social capital?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oncep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7(3), 480 - 510.
- Cigler, A., & Joslyn, M. R. (2002). The Extensiveness of Group Membership and Social Capital: The Impact on Political Tolerance Attitud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5(1), 7-25.
- Durlauf, S. N., and Fafchamps, M. (2004). Social capita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0485.
- Fine, G.A., and Harrington, B. (2004). Tiny publics: Small groups and civil society. *Sociological theory*, 22(3): 341-356.
- Fischer, C.S. (2005). Bowling alone: What's the score?. *Social Networks*, 27(2), 155-167.
- \_\_\_\_\_. (2009). The 2004 GSS finding of shrunken social networks: An artifa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4), 657-669.
- Fischer, C., and Durham, X. (2022). Forms of group involvement: Alternatives to the standard ques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65(4), 661-683.
- <https://www.europeansocialsurvey.org/methodology/source-questionnaire>
- <https://gss.norc.org/us/en/gss/get-documentation/questionnaires.html#quex-accordion-10>

- Kolenikov, S., and Angeles, G. (2004). The use of discrete data in PCA: theory, simulations, and applications to socioeconomic indices. *Chapel Hill: Carolina Population Cente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 1-59.
- Markowska-Przybyla, U. (2012). Social capital as an elusive factor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Leadership, Accountability and Ethics*, 9(3), 93-103.
- McPherson, M., Smith-Lovin, L., and Brashears, M.E. (2006). Social isolation in America: Changes in core discussion networks over two deca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3), 353-375.
- Morton J. S., Rimé B., Herman G., Bourguignon D., and Luminet O. (2024). Towards an interdisciplinary consensual measure of social participation: From scoping review to clustering measurement.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7(1), 1 - 23.
- Poder, T.G. (2011). What is really social capital? A critical review. *The American Sociologist*, 42(4), 341-367.
- Paxton, P., and Rap, R. (2016). Does the standard voluntary association question capture informal associ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60: 212-221.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New York.
- Putnam, R.D., Feldstein, L., and Cohen, D.J. (2004).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Roper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 2001, 「Social Capital Benchmark Survey: Methodology and Documentation」. USMISC2000-SOCCAP.
- \_\_\_\_\_, 2009, 「Social Capital Community Survey: Methodology and Documentation」. USMISC2006-SOCCAP.
- Saguaro Seminar, (2001). *Social Capital Benchmark Survey Executive Summary*. Cambridge, MA: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 Smith, T.W. (1990). Trends in voluntary group membership: Comments on Baumgartner and Walke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3), 646-661.
- Terwee C.B, Crins M.H.P, Boers M, de Vet H.C.W, and Roorda L.D. (2019). Validation of Two PROMIS Item Banks for Measuring Social Participation in the Dutch General Population. *Quality of Life Research*, 28, 211 - 20.
- UK National Statistics, 2002,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 Verba, S., and Nie, N.H. (1987).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lidation of the Social Participation Scale Using Item Response Theory

In Chol Shin<sup>3)</sup>

##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validity of the Social Participation Scale used in the National Data Office's Social Survey. Although this scale, originally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60s, is widely used internationally, persistent academic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its internal structure and cultural applicability. In South Korea, however, it has been conventionally employed without rigorous methodological scrutiny. Using data from the 2019, 2021, and 2023 Social Surveys, this study conducted a five-stage validation process—examining unidimensionality, local independence, monotonicity, measurement invariance, and item parameters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based on Item Response Theory (IRT).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current scale i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that cannot be reduced to a single continuum. Consequently, the prevailing practice of simple summation, which ignores individual item weights, is methodologically inadequate, compromising both precision and validity. Notably, the 2023 dataset violated both unidimensionality and local independence, limiting the direct application of IRT models. Furthermore, the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uggests that cross-group and longitudinal comparisons may be subject to significant bias. While the scale's historical use and symbolic importance as a social indicator preclude a call for its immediate aboli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greater methodological rigor. Researchers are advised to move beyond simple score summation and instead utilize items related to political and civic organizations—which demonstrated higher validity—as distinct public participation indicators.

**Key words :** Item Response Theory, Social Participation Scale, Measurement Invariance,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Mokken Scale Analysis

---

3) Associate Professor, Dep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E-mail: incshin@uos.ac.kr